

1. 산문 그리기

산?

산처럼 많은 경험 속에서
솟아오르는 생각들을
글자 수나 운율의 제한 없이

문?

문장 속에 진실하고 솔직한 내용을
충실히 자유롭게 묘사하여
마음을 담아 보자,
화가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풀 꽃

저
약하디 약한 몸
이름 모를 풀꽃.

눈보라 치는 겨울,
무더운 여름도
견디기 힘들었으리.

그 어려움을 딛고
불품은 없지만,
한 송이 꽃을 피워낸
그 기상,
그 고귀함.

그 고귀함을
뒤로하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이름 모를 풀꽃.

향기 속에 묻어나는
자연의 그 가르침
내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싶다,
작은 풀꽃 한 송이로.



진실하고 솔직한 내용을 충실하게 그리자

1. 진실하고 솔직한 내용
2. 글감과 주제 찾기
3. 자신의 개성이 담긴 독창적인 내용
4. 뜻이 쉽고 분명한 내용

진 실



(1) 진실하고 솔직한 내용

우리 **아빠**

나는 우리 아빠가 제일 좋습니다.

아빠는 친구처럼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합니다.

아빠는 까칠까칠한 수염으로 장난을 치는 어른개구쟁이 입니다.

하지만 야단치는 아빠의 모습은 무섭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길잡이



아빠 는 친구로
아빠 는 **어른개구쟁이**로 비유



(주제)

좋다. 사랑한다.

잘 놀아 주는 아빠는 친구로, 장난치는 아빠는 **어른개구쟁이**로, 야단치는 아빠 모습은 무섭고 엄하지만, 아빠를 **제일 좋아하고 사랑한다**라고 끝맺음을 했습니다.

참 솔직하고 진실하게 묘사하여 비유했으며 뜻이 쉽고 분명한 글입니다.

(2) 글감과 주제 찾기

일 등등

① 글감은 무엇일까?

시멘트, 자갈, 모래, 목재 등이 집을 짓기 위한 재료라 한다면 글감은 글을 짓기 위한 재료라고 합니다.

② 글감은 어디서 찾을까?

집을 짓기 위한 재료는 대자연 속에 널려 있다면 글감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것과 본 것 모두가 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경험** : 다툼 일, 꾸지람을 들은 일, 아빠하고 논 일, 아파 병원 간 일, 병 문안 간 일, 가족끼리 해수욕장에 간 일, 청소 한 일 등등

♣ **본 일** : 예쁜 장미꽃을 본 일, 도둑질하는 것을 본 일, 개미떼가 이사가는 것을 본 일, 뉴스를 본 일, 책을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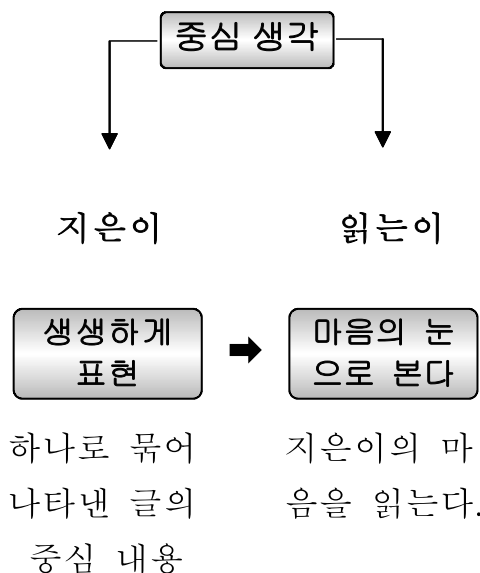
그 중에서 욕심부리지 말고 가장 기억에 남는 생생한 것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③ ‘우리 아빠’의 글감은 무엇입니까? ()

④ 주제란 무엇입니까?

지은이가 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⑤ ‘우리 아빠’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



※ 다음 두 글감 중, 하나를 선택해서 원고지에 글을 써 보시오.

글감 : 아빠(아버지), 엄마(어머니)

독창적



(3) 자신의 개성이 담긴 독창적인 내용



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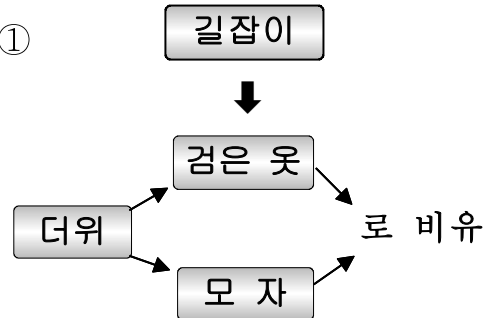
‘어휴! 더워, 모자를 써서 그런가 아니면 검은 옷을 입어서 그런가?’

“주인님, 검은 옷을 입어서 그래요.”

“그러니? 괜히 검은 옷을 입었네.”

‘어, 그런데 머리에서 땀이 나네! 모자한테 속았다.’

①



(주제)

옷 건달 만큼 덩다.

(글 속에 숨어 있어 보이지 않네)

익살스럽게 비유하여 재밌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더위를 참지 못하겠다는 솔직하고 진실함도 잃지 않았습니다.

② 생각하는 글은 작은 따옴표로 대화글은 큰 따옴표를 사용한 대화체의 글입니다.

③ 모자, 검은 옷을 사람처럼 의인법을 사용한 좋은 표현법의 글입니다.

④ 뜻이 쉽고 분명합니다

⑤ ‘모자’의 글감은 무엇입니까?
()

⑥ 작은 따옴표는 어느 때 사용
합니까? _____

⑦ 큰 따옴표는 어느 때 사용합
니까? _____

⑧ ‘모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

⑨ ‘모자’란 글에서 가장 창의적
인 부분을 찾아 써 보시오.
()

공



“공아, 너는 왜 잘 튕기니?”

“응, 그건 내 배 안 속에 공
기가 있잖아.”

“그랬구나! 나는 몰랐어.”

‘에이, 저 조그만 공한테 지다 ◎ _____

니 속상해.’

‘그래도 괜찮아. 나도 이제 열
심히 공부하고, 과학 책도 열
심히 읽어서 머리를 좋게 하
면 되니까.’

⑩ ‘공’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했
습니까?

()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무
엇이라고 합니까?

()

☞ 글의 표현법은 그 부분을 강조
하여 실감나게 하는 기교임

⑪ 지은이가 공 속에 공기가 들
어 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

☞ ‘공’은 몰랐던 사실을 재밌게
표현했으며, 정말 몰랐던 것처
럼 강조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⑫ ‘공’이란 글이 왜 창의적이라
고 할 수 있습니까?

◎ _____

- _____
- _____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남 다른 표현 방법과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방법을 섞어 이용하면서, 꾸미지 말고 생생한 자기 체험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살아 있는 글 즉 창의적인 글을 쓸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 둘째, 주위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이 다 훌륭한 글감이 된다는 사실에 늘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목욕을 다녀오니 내 배가 쪼르륵 했다.

나의 손은 내 입으로 밥을 열심히 날랐다.

손은 내 배를 채워 주고 목이 마를 때 물 심부름도 잘 해 준다.

“손아, 네가 밥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니, 너 힘들지 않니?”

“응 그래, 하지만 나도 너처럼 참고 잘 견딘단다.”



쉽고 분명함



(4) 뜻이 쉽고 분명한 내용



부지런한 손

ㄱ① 배가 고프다.

지은이

읽는이

생생하게
표현



마음의 눈
으로 본다

배가 쪼르륵
했다.

정말로 배가
고픈가 보다

ㄱ② 밥을 빨리 먹었다.

지은이

읽는이

생생하게
표현



마음의 눈
으로 본다

손은 밥을 열 정말로 배가
심히 날랐다. 고팠던가 보다

⑤ ‘손’은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

⑥ 다음 글을 묘사해 보시오.

☞ 학교 앞까지 늘어선 코스모스를 보았다.(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 _____

③ 이 글은 보통글과 대화글이 혼합된 글입니다.

(여러 형태의 표현법을 이용하면 실증나지 않고 더 생생하게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 실감이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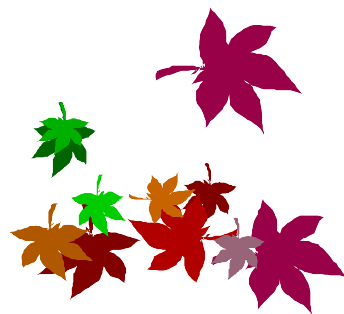
※ 다음 두 글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원고지에 써 보시오.

글감 : 엄마 손, 거울

④ **손** = **심부름**에 비유
↓
(주제)

손은 귀중하다.

↑
‘손’은 { 밥을 날라 주고,
물도 떠다 주고,
빨래도 해 주면서
불평 없이 잘 참고 견딘다.



살아 있는 감동적인 글을 쓰자

1. 직접 체험한 솔직한 내용
2. 묘사 - ① 일반 묘사 ② 비유법 ③ 의인법 ④ 강조법
⑤ 도치법 ⑥ 설의법 ⑦ 영탄법(감탄)
3. 문장의 구성 방법

1. 직접 체험한 솔직한 내용

책읽기와 ●●●

집 안 청소

꿈꾸는 번데기

옥상에서 키운 배추에 애벌레가 많이 있었다.

세 마리를 가져 와서 컵에 담아 길렀다.

며칠 후 애벌레가 점점 커지더니 번데기로 변했다.

그런데 봄이 아닌데도 두 마리의 번데기가 나비로 변해 날아갔다. 한 마리의 번데기는 봄까지 꿈을 꾸다가 예쁜 나비가 되어 자기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나는 아침밥을 먹을 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열 두 시까지 책을 읽고 엄마 가게로 오너라.”

나는 책을 열심히 읽고 잠시 쉬었다가 방 청소를 했다. 참 힘이 들었다.

‘엄마도 참 힘이 드셨겠다. 다음에도 도와 드려야지.’

공 부

오늘은 학교에서 공부가 참 잘 되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공부가 정말 재미있고, 또

즐거웠기 때문에 잘 되었는가
싶습니다.

난 이런 기분이 오랫동안 오
늘도 내일도 계속 되면 공부는
자연히 잘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
는 걸 기록하며 문제를 푸니,
너무 쉬워서 마치 하늘에 둥둥
떠난 기분이었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공부란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고…….’

2. 묘사 : 눈으로 보듯 생생하 게 표현하여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방법

(1) 일반 묘사의 예

- ① 온 힘을 다 하여 → 젖 먹던
힘까지 다 하여
- ② 바람이 살짝 지나갔다. → 바
람이 나의 머리카락을 살짝
건드리고 지나갔다.
- ③ 먼저 말을 했다. → 먼저 말

을 꺼냈다.

(2) 비유법 : 빗대어 표현

- ① 직유법 - 직접 잘 드러나게
(마치~처럼, 듯, 같이, 같다 등)
· 운동장을 가득 메운 아이들이
마치 개미 떼와 **같았다**.
(가득 메운 아이들 = 개미 떼)

- ② 은유법 - 잘 드러나지 않게
· 내 동생 나비(동생=나비)

(3) 의인법 : 사람처럼 표현

- 지우개야, 넌 참 고마운 친구
야!

(4) 강조법 : 더 강하게 표현

- ① 과장법 - 더 많거나 크게 표현
· 많은 → 수많은
· 큰 뱀 → 팔뚝 굵기 만한 뱀
- ② 반어법 - 속뜻과 반대되게
· 흠어진다 → 흠어지지 않을
수 없다.
· 칭찬하다 →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③ 도치법 - 순서를 바꾸어 표현

- 외나무다리 밑으로 떠나려간다. → 떠나려간다, 외나무다리 밑으로.

④ 반복법 - 되풀이하여 표현

- 간다 간다 떠나간다.
- 개나린 개나린 노란 배가 되었다.

⑤ 설의법 - 의문형으로 설득하듯

- 순이야, 물 좀 떠와 → 순이야, 물 좀 떠다 줄래?

⑥ 영탄법(감탄) - 느낌표 사용하여 감탄하듯

- 푸른 오월이다. → 푸른 오월이여!
- 빨간 장미꽃이 아름답다. → 아름다운 빨간 장미꽃!

뽀뽀에서 구르다고?

신나는 체육 시간!

난 매일 좋지 않던 일도 금방

풀릴 만큼 체육을 좋아한다.

오늘은 무엇일까? 역시 뽀뽀를 하였다.

진선이와 난 6단에 도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 반 여자아이들 중에 5단을 아직 못 넘는 아이들이 많아 5단만 계속 넘었다.

5단을 넘을 땐 너무 아찔한 느낌이 온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못 넘을 것 같았는데, 넘으면 내가 새가 되어 나는 것처럼 기분이 무척 좋았다.

열심히 뽀뽀 연습을 하고 있으니깐 선생님께서 구르기를 하라고 하셨다.

“뽀뽀에서 구르다고?”

“뽀뽀에서 어떻게 굴러?”

다들 야단들이었다. 하지만 남자아이들의 시범을 보고 나서 난 자신감을 가졌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가 할 차례가 되었다. 숨을 한 번 가다듬고 옆에서 도와 주시는 선생님만 믿고 힘껏 구르니까 성공했다. 머리가 빙 돌긴 했지만,

기분이 좋아 펄쩍펄쩍 뛰고 싶었다.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얼굴에 웃음꽃만 피었다.

못 넘어 꿀밤만 먹던 껌이도 누구 못지 않게 잘 한다.

“교실에 들어가”

선생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내 귀엔 채육을 하지말고 들어가라는 서운한 말 같았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나! 아쉽긴 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교실로 향했다.

날고 싶었다.

내려올 때에는 나 같은 예쁜 나비가 넘어질까 봐 겁이 나서 사뿐사뿐 내려왔다. 때로는 너무 경사가 지고 미끄러워서, 그런지 잘 내려오지 못해 친구의 도움을 받고 내려왔다.

아무튼 나는 이 산행으로 인해 나도 하면 된다는 강한 집념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소 풍

오늘은 소풍을 갔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하필이면 장소는 금정산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올라갈 때에는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정상이다 싶을 때는 정말 그렇게도 좋을 수가 없었다. 하늘을 훨훨 날 수 있으면



슬 픔

오늘은 옆집 아저씨께서 숨을 거두셨다. 자주 그 아저씨의 얼굴은 못 봤지만, 자상하신 것 같았다. 그런데 벌써…….

‘참 안 되었다.’

옆집에는 승은이라는 3학년 짜리 동생이 있다. 그 동생은 어려서 그런지 슬픈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웃으며 아버지를 보내겠단 뜻인가?’

요즈음 의학이 발달되었다고 해도 암을 못 고쳐 아쉬웠다.

거울을 보며

거울을 보면 나의 마음이 보인다.

화가 났을 때는 나의 모습이 무섭게 보이고, 기쁠 때는 예쁘게 보인다.

거울은 얼굴을 비춰 주고, 얼굴은 마음을 비춰 준다.

내가 웃으면 거울 속의 내 얼굴도 따라 웃는다. 나는 매일매일 웃는 연습을 해서 예쁜 얼굴을 갖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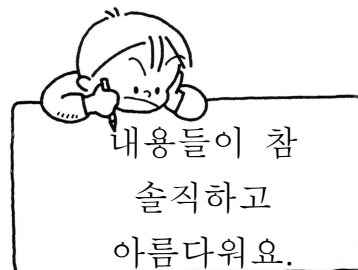
실 내 화

“주인님, 이제 그만 구겨 신으세요.”

“냄새나는 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

“주인님이 나라면 구겨 신으면 아프겠죠?”

“그렇구나! 나는 내 생각만 했네. 그래 미안하다. 그래도 난 네가 싫은 걸.”



3. 문장의 구성법

(1) 무엇에 비유(빛대어 표현)할 것인가?

6.25와 통일안보

를

우리 가정

에 비유

(2) 어떤 내용을 비유(빛대어 표현)할 것인가?

이기주의로 남북과
6.25, IMF도 생기
게 됨을 안 사실

을

나의 이기심 때문에 가정도
화목하지 못 하고, 새 아빠
를 미워하게 되었다는 사실

에 비유

(3) 문장을 구성할 근거 재료는 무엇으로 할까?

IMF로 실직
한 새 아빠
와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가정

→

6.25 전쟁
으로 흩어
진 이산
가족 찾기
뉴스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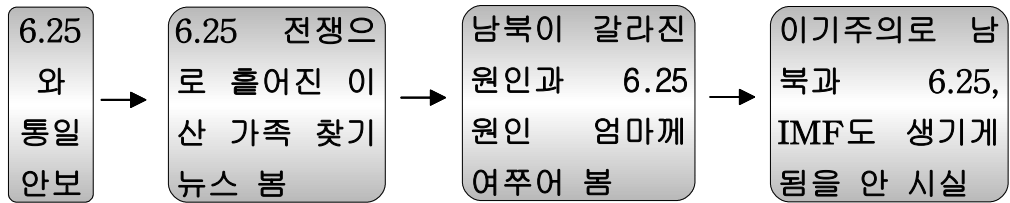
→

유치원 때 유
엔 묘지로 견
학을 가서 철
모르게 장난치
고 놀았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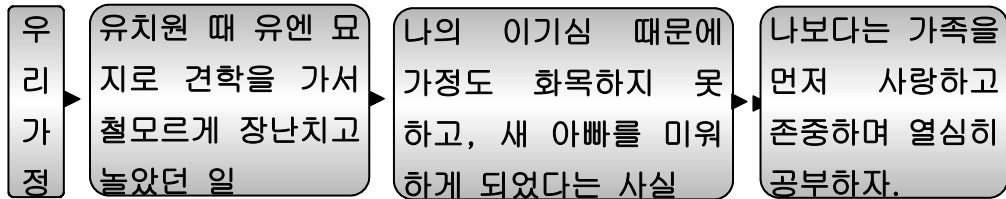
→

남북이 갈라
진 원인과
6.25 원인
엄마께 여쭙
어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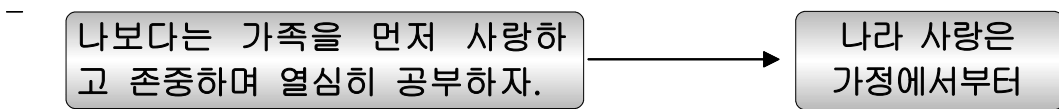
(4)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 ① 6.25와 통일 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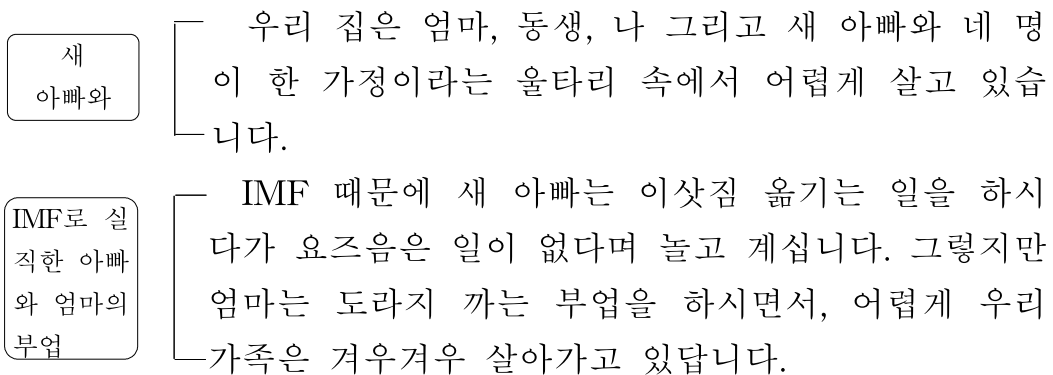
(5)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 ② 우리 가정



(6) 주제는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나라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통일 안보에 관한 글)



TV의 이
산 가족
찾기

그러던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6·25전쟁으로 북에 두고 온 이산 가족을 애 타게 찾고 있는 모습들이 내 눈가를 타고 방울방울 스쳐 가고 있었습니다.

유엔 묘지 견학
갔던 일

그 순간, 나는 유치원 다닐 때 유엔 묘지 견학을 갔던 일이 한 폭의 그림처럼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땐 그저 놀러 온 줄만 알고 마냥 뛰어 놀았습니다. 이제야 그 일이 부끄러워집니다. 선생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장난만 치고 놀던 일이 나의 불을 더욱 빨갱게 물들어 놓았습니다.

‘남북은 왜 갈라졌을까? 6·25는 왜 일어났을까?’
부엌에서 도라지를 까고 계시는 엄마에게 달려가 난 다그치듯 여쭙어 보았습니다.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발갱게 달아 오른 내 얼굴을 쳐다만 보시다가 조용히 말문을 여셨습니다.

이기주의
로 갈라
진 남북,
6.25전쟁,
IMF의
위기

“○○아, 남북이 갈라진 것은, 미국과 소련 같은 강한 나라들이 살기 좋은 우리 나라를 먹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지. 또 6·25가 일어난 것은 공산주의가 무력으로 우리 나라를 빼앗기 위한 전쟁 때문이고, 새 아빠가 일자리를 잃어버려 우리 가정이 어려운 것처럼 IMF의 경제의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이 자기만 잘 살겠다는 이기심 때문이란단. 이제 좀 알겠니?”

“응, 그러면 남북이 갈라진 것도, 6·25가 일어난 것도, IMF가 생긴 것도 다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

나의 이
기심 때
문에 새
아빠를
미워하고,
가정도
화목하지
모하

가 족 을
사랑하고
열 심 히
공부하자

이구나! 그렇지 엄마?”

“아이구나! 우리 ○○이 다 컸네”

— 하시며 엄마는 날 칭찬해 주셨다.

— 그렇다. 나라 사랑의 첫걸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심부름도 잘 안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혼이 날 때가 많다. 새 아빠는 내가 잘못하면 호랑이처럼 바르게 일러 주시고, 잘하면 함박꽃처럼 웃어 주시는 그런 자상한 아빠를 진짜 우리 아빠가 아니라고 늘 속상해 하면서 말썽만 피웠는데, 자신의 이익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갑자기 불어닥친 IMF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난 깨달았습니다.

— 자신의 이익보다는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여러 조상님들의 영혼 앞에 고개 숙여 나는 다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할 것을…….

☞ 본 것과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 그리고 들은 것을 통일 안보 또는 6.25와 같은 겪어 보지 못한 내용으로 끌어와 글을 구성한다.

☞ IMF, 새 아빠와의 문제점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의지를 주제로 구성한다.

어리석은 사기꾼들 (TV를 보고)

“따르릉-”

같이 놀자는 △△의 전화였다. △△ 집에서 함께 열심히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뽐뽐뽐, 뽐뽐뽐!”

하는 소리와 함께 ‘경찰청 사람들’이라고 큰 자막이 화면 위로 떠오르는 경찰 아저씨들의 모습은 아주 멋졌다.

우리 막내 동생,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찰이 되고 싶다면 ‘경찰청 사람들’에서 나오는 늙름한 경찰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은 사기였다. 여자 한 명, 남자 2명으로 구성된 사기범들이었다. 무엇을 수출한다 하고, 신문에다가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광고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믿도록 한 뒤, 가입비 5만원, 부품비 20만원까지 25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렇지만 주부들은 그게 사기인 줄은 몰랐다. 나는 이걸 보면서 너무 답답하였다. 부업인데 가입비에다 부품 값까지 받다니, 나 같으면 의심이 되어 경찰서에 당장 신고했을 텐데, 사기범들의 속셈에 속고 말았다.

‘어쩌면 저렇게 빠질까? 어떤 사람의 사기는 마치 요술 같다고 한다. 그 요술에 걸리면 쉽게 빠진다고 한다. 사기범은 역시 나름대로 재주꾼이야. 어떻게 말하면 모든 게 다 될까?’

난 ‘경찰청 사람들’만 보면 이런 생각들이 자꾸 몰려온다.

하지만 이런 사기꾼이나 강도, 도둑 등 나쁜 것만 골라 하는 사

람들은 왜 잘못된 일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일까? 나 같으면 내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아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쁜 놈 ○○이’가 아닌 ‘아 저 사람 정말 멋지더라, ○○이라는 사람!’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

이제 나쁜 일 하시는 분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르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볼 때마다 아쉬움 뿐이다

선생님은 안 돼요



동글동글 피어나는 저 구름은 누구 입에서 나나요? 그들 가까이에는 병이 보여요.

‘어, 히히닥거리는 저 놈들 왜 모를까?’

어느 쉬는 시간이었다. 담배 연기 모락모락 피어 올리는 우리 선생님을 보는 순간, 몇 년 전의 추억이 TV 화면처럼 스쳐가고 있었다.

3학년 때의 일이다. 새로 전근 오신 남자 선생님, 그 분이 담임이 되셨다.

엄마와 함께 TV를 보던 어느 날, 뉴스에서 담배를 많이 피면 죽는다고 했다. 나는 너무 놀라 엉엉 울고 말았다.

“엄마, 우리 선생님 담배 피우시는데, 죽으면 어찌지? 아까 약 드시는 것을 봤어. 어찌지 엄마?”

그 다음 날, 엄마는 선생님을 찾아 오셨다. 그리고 두 분은 한참 동안 ‘하하하 허허허’ 웃고 계셨다. 그 까닭을 몰라 앵두처럼 빨개

진 내 얼굴을 보며 엄마는,

“지은아, 선생님은 이제 담배를 조금씩 줄이시겠단다. 또 그 약은 감기 약이었고, 글썄 너희 선생님은 좋겠다. 엄청 걱정해 주는 제자도 있구.”

“와, 정말이야?”

선생님도 빙그레 웃으시며,

“지은아, 어제 많이 울었쎄? 이제 담배 줄일 게.”

하셨다. 그러나 마음은 놓이지 않았다.

“선생님, 또 피우신다구요? 단 한 개라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단호하게 자르듯 말씀드렸다.

허허, 엉덩이를 툭툭 치시며 안아 주시던 선생님!

그 뒤로 우리 교실엔 뭉게구름은 없어졌다.

가끔 선생님은

“지은아, 이젠 안 울제? 그럼 선생님 하나만 피우자.”

하시며 웃으시곤 했다.

그러실 때마다 난,

“선생님, 피우고 싶으세요. 정말? 그럴 땐 리코더를 부세요. 네? 소리도 아름답고 좋잖아요. 아, 선생님은 리코더를 잘 부셔서 여러 번 상도 받으셨다고 하셨죠? 그럼 부세요.”

어리광을 부리듯 말리곤 했다.

그 후로 우리 반은 항상 리코더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오는 날 뿐이었는데…….

땡땡, 수업종 소리에 화알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이번 시간은 음악 시간이다.

리코더를 불면서 옛 추억을 더듬어 선생님의 얼굴을 그려 본다.